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

Parenting Stress with her Infant an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 who commit their infants to
child-care facilities

류기자(Ryu, Ki Ja)*, 김영주(Kim, Young Joo)**, 송연숙(Song, Yeon Sook)***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의 상호관련성과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다른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시의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23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그 결과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설명하는 변수로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다.

주제어: 보육시설 영아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사회적 지지

-
- * 제 1저자: 울산현대자동차 어린이집 원장
** 교신저자: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grace609@hanmail.net
*** 공동저자: 울산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I. 서론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점 추진 정책 및 과제에서 영아보육시설 확충을 명시하고, 영아 전담 시설의 인건비 지원과 영아 전담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영아보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영아보육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이 부족하여 취업모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함으로써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더욱이 장시간의 영아 보육이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Belsky, Vandell, Burchinal, Clarke-Stewart, McCartney 그리고 Owen(2007)의 주장은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어머니들에게 심리적 갈등이나 양육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작용하여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나 어머니-자녀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며(박성연, 고은주, 2003), 양질의 보육은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인다(강희경, 조복희, 1999)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이와 관련된 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양연숙과 조복희(2001)도 12-18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타인 양육의 시작시기와 타인 양육의 질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상호작용하여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영아기의 타인 양육 경험과 아동의 발달과의 관계가 단순 모델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영아보육 서비스의 증가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논의는 영아와 영아를 둘러싼 양육 환경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영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환경인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기능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양육 효능감은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Mash & Johnson, 1990)하는 어머니의 중요한 심리적 기능중의 하나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양육 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한다(Coleman & Karrake, 1997; Dumka et al, 1996; Sanders & Woolley, 2005; Teti & Gelfand, 1991). 그리고 자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면, 양육 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

고 강압적이고 체벌적이며,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고, 부모역할에 수동적 대처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Gondoli & Silverberg, 1997; Teti & Gelfand, 1991).

국내의 연구에서도 양육 효능감은 부모관련 변인, 가정환경에 관한 변인, 자녀관련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부모 자신과 관련된 변인은 부모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 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부모의 스스로에 대한 기대는 아동의 적응이나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우희정, 이숙, 1994). 또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연구(문혁준, 1999, 2005; 서소정, 2004)가 있는 반면, 안선희와 김선영(2004)의 연구와 한유미(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양육 효능감에 차이가 없었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변인은 가계 소득,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 가족의 건강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높으면 양육 효능감도 높지만(김경은, 2003), 가계 소득과 양육 효능감이 선형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편은숙, 2003).

자녀관련 요인은 주로 자녀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 등이다. 자녀의 발달적 시기에 따라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안지영, 박성연, 2002), 만 3-5세 유아를 둔 어머니(한유미, 2003), 만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승미, 김희진, 2005), 만 4-6세 유아를 둔 어머니(안선희, 김선영, 2004), 만 5세 유아의 어머니(이진숙, 한지현, 2004), 학령기 아동을 둔 어머니(Coleman & Karraker, 2000)에 관한 국내외 연구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계 소득에 따라 양육 효능감이 상이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영유아기는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양육 스트레스란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어머니가 수행하는 부모 역할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와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김기현, 강희경, 1997)이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선행연구(김미숙, 문혁준, 2005; 유우영, 최진아, 이숙, 1998)와 서두에서 언급한 영아보육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보육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Belsky와 그의 동료들(1997)의 주장을 통하여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심리적 갈등이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양육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면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영아보육시설이 어머니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라면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특히 강조되어진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역할이나 자녀를 대하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ronfenbrenner, 1979).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는 자녀의 양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부모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부모-유아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Belsky(198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어머니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덜 지배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는 유아의 사회, 인지 발달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일반적인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고, 양육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지원이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양육 효능감과 긍정적인 상관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회적 지지를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하위 영역별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즉,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 효능감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양육 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4.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위의 연구문제를 구명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U시의 국 . 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영아전담 보육시설 등 다양한 설립형태의 보육시설 10곳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양육 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한 결과, 잘못 기입되었거나 문항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234부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와 영유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34

변인	내용	N	백분율(%)
연령	20-30세	97명	41.5
	31세 이상	137명	58.5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80명	34.2
	전문대 졸업	70명	29.9
	대학교 졸업이상	84명	35.9
직업	비취업모	79명	33.8
	취업모	155명	66.2
가계월수입	200만원 미만	42명	17.9
	200-300만원 미만	78명	33.3
	300-400만원 미만	57명	24.4
	400만원 이상	57명	24.4
자녀 성별	남아	114명	48.7
	여아	120명	51.3
자녀 월령	0-12개월	8	3.4
	13-24개월	52	22.2
	25-36개월	174	74.4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170	72.6
	둘째	54	23.1
	셋째	10	4.3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다음과 같다.

1) 양육 스트레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이 개발한 PSI(Parenting Stress Index) 36문항을 서혜영(199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PSI/SF((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는 부모 보고용 질문지로, 부모의 고통(Parental Distress),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Child) 등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을 포함한다. 양육 스트레스 척도 분류 문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 및 문항 수

양육 스트레스	문항 수 (36)	문항 내용
부모의 고통	12	부모의 우울감, 역할역제,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 (역기능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개인의 적응상의 문제)
부모자녀 간 역기능 상호작용	12	영유아의 수용성, 부모에 대한 영유아의 강화, 영유아에 대한 애정, 부모의 애착 (영유아와 부모의 기대 불일치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2	영유아의 적응, 요구, 기분, 활동수준 (부모가 아동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갖는 행동 특성)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1점)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본 질문지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보면 36점~180점의 범위를 가진다. 내적 일관성에 의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2였다.

2) 사회적 지지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의 지지 형태에 관한 분류를 참고하여, 사회적 지지 기능적인 측면으로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그리고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를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평정척도는 5점 평정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다. 본 질문지에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한 총

점은 최하 25에서 최고 125점이다. 사회적 지지 Cronbach's α (문항내적합치도)에 의해 산출된 신뢰도는 .97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및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사회적 지지 척도의 요인 및 문항 수

사회적 지지	문항 수(25)	문항 내용
정서적 지지	9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
정보적 지지	7	직업의 기회나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등 개인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
물질적 지지	4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
평가적 지지	5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것과 같은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3) 양육 효능감 측정 도구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형성(2005)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최형성과 정옥분(2001)의 도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지지도 능력 등 1-3세의 영유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문항이 있어 이를 영유아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양육 효능감은 또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인지지도 능력, 훈육능력, 의사소통 등의 하위영역을 포함 한다. 측정도구는 5점 평정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으며 양육 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0이었다. 양육 효능감의 하위요인 및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

<표 4> 양육 효능감 척도의 요인 및 문항 수

양육 효능감	문항 수(30)	문항 내용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	6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지식, 행동 등에 관한 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5	자녀의 심신 건강과 관련된 문항
인지지도능력	4	자녀의 인지발달과 관련된 문항
훈육능력	8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는 능력과 관련된 문항
의사소통	7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문항

3. 연구절차

연구의 자료는 U시의 보육시설 10곳을 선정하여 사전 3일 동안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들과 미리 상담을 하고 연구대상 어머니 수를 파악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1주일 후 회수하였다.

조사가 실시된 기간은 2006년 2월 4일부터 2월 15일까지였으며, 총 300부의 질문지를 10곳의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배부하여, 회수된 질문지 중 잘못 기입되거나 문항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234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 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F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 양육 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 자녀 양육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고 어머니의 자녀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분석

1. 연구대상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 효능감

연구대상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 효능감은 다음 <표 5>와 같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는 전체의 평균이 85.57로 중간 값보다 낮게 나왔고 부모의 고통 32.51, 부모-자녀 간 역기능 상호작용 22.90,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30.16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이 90.28로 중간 값보다 높게 나왔으며, 정서적 지지 34.28점, 평가적 지지 15.17점, 물질적 지지 14.64점, 정보적지지 26.19점으로 모두 중간 값 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육 효능감은 전체의 평균이 100.58로 중간 값보다 높게 나왔고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 19.42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17.83점, 인지지도 능력 13.72점, 훈육능력 27.48점, 의사소통이 24.89점이었으며 인지지도 능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간 값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연구대상의 양육 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사회적 지지

N=234

변인	평균	표준편차	점수 범위(중간값)
양육 스트레스	85.57	20.07	36-180(108)
부모의 고통	32.51	7.63	12-60(36)
역기능적 상호작용	22.90	6.03	12-60(36)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30.16	10.14	12-60(36)
사회적지지	90.28	16.40	25-125(75)
정서	34.28	6.25	9-45(27)
정보	26.19	5.00	5-25(15)
물질	14.64	3.14	4-20(12)
평가	15.17	2.79	7-35(21)
양육 효능감	100.58	11.87	30-150(90)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	19.42	3.41	6-30(18)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17.83	2.86	5-25(15)
인지지도 능력	13.72	2.38	7-35(21)
훈육 능력	27.48	3.45	8-40(24)
의사소통	24.89	4.28	4-20(12)

2.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양육 효능감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연구대상의 양육 스트레스는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양육 스트레스를 어머니의 연령별로 볼 때,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43$ $p<.05$). 30세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연령이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가계 수입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83$ $p<.05$). 월수입 200만원 미만이 가장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고, 200-300만원, 400만원 이상, 300-400만원 미만 순이었다. 이외에 다른 변인에 따라서는 양육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구분	N	M	SD	F
연령	20-30세	97	89.06	5.43*
	31세 이상	137	82.96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80	84.01	.64
	전문대 졸업	70	87.64	
	대학교 졸업이상	84	85.09	
취업여부	비취업모	79	86.19	.15
	취업모	155	85.13	
가계 월수입	200만원 미만	42	92.33	2.83*
	200-300만원 미만	78	86.56	
	300-400만원 미만	57	81.70	
	400만원 이상	57	82.75	

* p<.05

2)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가계 소득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서와 같이 연구대상의 연령과 취업 여부, 가계 수입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볼 때, 31세 이상의 어머니가 30세 이하의 어머니보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었고(F=5.52, p<.05),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F=5.14, p<.05). 가계 수입에 따라서는 수입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아졌으나 가계 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400만원의 가계수입을 가진 경우보다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F=4.49, p<.01).

<표 7>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

구분	N	M	SD	F
연령	20-30세	97	90.93	5.52*
	31세 이상	137	96.04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80	91.93	2.13
	전문대 졸업	70	92.57	
	대학교 졸업이상	84	96.95	
취업여부	비취업모	79	90.44	5.14*
	취업모	155	95.70	
가계 월수입	200만원 미만	42	86.14	4.49**
	200-300만원 미만	78	93.51	
	300-400만원 미만	57	97.24	
	400만원 이상	57	96.91	

* p<.05 ** p<.01

3)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효능감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가계 소득에 따라 양육 효능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에서와 같이 연구대상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양육 효능감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볼 때, 30세 이하의 어머니가 31세 이상의 어머니보다 양육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으며($F=9.17, p<.01$),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F=3.65, p<.05$).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이외에 취업여부, 가계 월수입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 효능감

	구 분	N	M	SD	F
연령	20-30세	97	97.63	12.85	9.17**
	31세 이상	137	102.66	12.17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80	103.47	12.99	3.65 *
	전문대 졸업	70	100.10	11.44	
	대학교 졸업이상	84	98.24	13.11	
취업여부	비취업모	79	101.55	12.70	.68
	취업모	155	100.10	12.67	
가계 월수입	200만원 미만	42	99.07	14.60	.64
	200-300만원 미만	78	99.74	13.65	
	300-400만원 미만	57	102.01	13.09	
	400만원 이상	57	101.42	8.90	

* $p<.05$ ** $p<.01$

*

3. 연구대상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

1) 연구대상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 <표 9>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 범위는 -.25에서 -.11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 연구대상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	-.25***	-.25***	-.24***	-.17**	-.23***
부모의 고통	-.18**	-.17**	-.16*	-.11	-.18**
역기능적 상호작용	-.24***	-.25***	-.24***	-.15*	-.20**
까다로운 기질	-.21**	-.22**	-.21**	-.18**	-.20**

* p<.05, ** p<.01, ***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양육 스트레스 전체와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와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별로 볼 때는 정서, 정보, 평가, 물질적 지지 순으로 높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인 부모의 고통은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와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각 영역별 사회적 지지와 부모의 고통과의 관계는 다른 양육 스트레스의 하위영역과는 달리 평가, 정보, 정서, 물질적 지지 순으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연구대상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 범위는 -.49에서 -.07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 간의 상관계수는 -.45(p<.001)로 비교적 높은 부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인 양육 효능감과 영역별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로서의 고통 순으로 높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표 10> 연구대상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양육 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 효능감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인지지도 능력	훈육능력	의사소통
양육 스트레스	-.45***	-.28***	-.27***	-.37***	-.46***	-.28***
부모의 고통	-.26***	-.19**	-.17**	-.27***	-.28***	-.07
역기능적 상호작용	-.36***	-.22**	-.19**	-.31***	-.37***	-.23***
까다로운 기질	-.49***	-.28***	-.28***	-.34***	-.49***	-.35***

***p<.001, **p<.01

또한,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인지지도능력, 훈육 능력, 의사소통에서의 양육 효능감은 양육 스트레스 전체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었고, 하위 영역으로 볼 때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로서의 고통 순으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양육 효능감은 낮아지며, 각 영역별로 볼 때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로서의 고통 순으로 양육 효능감과 부적인 상관을 지니고 있었다.

3) 연구대상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범위는 .24에서 .02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 간의 상관계수는 -.20(p<.01)로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전체적인 양육 효능감과 영역별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보, 정서, 평가, 물질적 지지의 순서대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훈육 능력 및 의사소통은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별로 볼 때는 정서, 정보, 평가, 물질적 지지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 11> 연구대상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과 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양육 효능감					
	양육 효능감 (전체)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인지지도 능력	훈육능력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20**	.03	.10	.14*	.20**	.23***
정서	.20**	.04	.10	.13*	.20**	.22**
정보	.21**	.04	.10	.16*	.20**	.24***
물질	.13*	-.01	.09	.06	.14*	.18**
평가	.19**	.03	.12	.02*	.19**	.20**

*** p<.001, ** p<.01, * p<.05

셋째, 인지지도 능력은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와 .14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인지지도 능력을 사회적 지지의 각 영역별로 볼 때는, 정보, 정서, 평가적 지지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물질적 지지는 인지지도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각 하위 영역별로 볼 때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연구대상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연구대상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 효능감에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 가계 소득, 어머니의 취업 유무 중에서 사회적 지지($\beta=.13$, $p<.05$), 자녀 양육 스트레스($\beta=-.31$, $p<.001$), 어머니의 연령($\beta=.16$, $p<.01$) 및 학력($\beta=-.18$, $p<.05$)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비롯하여 모든 관련 변수를 입력하였을 때, 연구대상의 양육 효능감에 대해 23% 정도의 설명력을 가진다.

양육 효능감의 하위 영역별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 양육 스트레스($\beta=-.34$, $p<.001$)만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에 대해 13%정도의 설명력을 가진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해서 양육 스트레스($\beta=-.24$, $p<.001$)와 어머니의 학력($\beta=-.14$, $p<.05$)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학력은 연구대상의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해 10%정도의 설명력을 가진다. 양육 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훈육능력 대해 살펴 본 결과, 사회적 지지($\beta=.13, p<.05$), 양육 스트레스($\beta=-.35, p<.001$)와 어머니의 연령($\beta=.20, p<.01$) 및 학력($\beta=-.20, p<.01$)이 훈육 능력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비롯하여 모든 관련 변수를 입력하였을 때, 연구대상의 훈육 능력에 대해 29%정도의 설명력을 가진다. 양육 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의사소통 대해 살펴 본 결과, 사회적 지지($\beta=.17, p<.05$), 양육 스트레스($\beta=-.19, p<.01$)와 어머니의 연령($\beta=.17, p<.05$)이 의사소통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비롯하여 모든 관련 변수를 입력하였을 때, 연구대상의 의사소통에 대해 19%정도의 설명력을 가진다. 양육 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인지도 능력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양육 스트레스($\beta=-.34, p<.001$)와 어머니의 취업여부($\beta=-.14, p<.05$)가 인지도 능력에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변인에 의해 연구대상의 인지도 능력에 대해 18%정도의 설명력을 가진다.

<표 12> 연구대상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양육 효능감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B	β	B	β	B	β
사회적 지지	.10	.13*	.01	.02	.01	.05
양육 스트레스	-.20	-.31***	-.06	-.34***	-.03	-.24***
어머니 연령	3.94	.16**	.02	.004	.41	.07
어머니 학력	-2.83	-.18*	-.36	-.08	-.48	-.14*
가계 소득	1.07	.08	-.12	-.03	-.03	-.01
어머니 취업 여부	-2.25	-.08	.57	.07	-.00	.00
상수	115.06		25.98		21.53	
F	9.78***		4.83***		3.70**	
R ²	.23		.13		.10	

구분	훈육능력		의사소통		인지지도 능력	
	B	β	B	β	B	β
사회적 지지	.03	.13*	.04	.17*	.01	.06
양육 스트레스	-.07	-.35***	-.04	-.19**	-.04	-.34***
어머니 연령	1.52	.20**	1.36	.17*	.52	.11
어머니 학력	-.95	-.20**	-1.06	-.21	-.06	-.02
가계 소득	.45	.11	.41	.10	.14	.05
어머니 직업	-.85	-.10	-.94	-.10	-.74	-.14*
상수	31.35		26.77		16.75	
F	13.37***		7.32***		7.00***	
R ²	.29		.19		.18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가변수로 처리(취업 1, 미취업 0)

***p<.001, ** p<.01, *p<.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살펴 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양육 스트레스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 결과는 연구대상이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로 비교적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유우영, 최진아와 이숙(1998), 김미숙과 문혁준(2005)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음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 및 가계 소득과 관련이 있었다. 이영석과 최외선(1993)의 연구에서는 젊은 어머니들이 나이 많은 어머니들보다 자녀 양육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녀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편은숙(2004)의 연구에서도 낮은 연령의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보다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원이나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일찍 어머니가 되어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계 수입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양육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낮은 수입이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랑(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구대상의 사회적 지지가 연령과 취업 여부, 가계 수입에 따라 사회적 지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 수입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의 연구(박영애, 나종혜, 2003; 이승미, 김희진, 2005; Brody, Flor, & Gibson, 1999)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이 가장 높은 400만원 이상 집단이 300-4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외에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연령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타당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결과를 축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해석을 유보한다.

연구대상의 양육 효능감은 연령과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낮았다. 기존의 연구(문혁준, 1999, 2005; 서소정, 2004)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안선희와 김선영(2004)의 연구와 한유

미(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는 양육 효능감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대상의 학력에 따른 양육 효능감은 기존 연구 결과(문혁준, 1999; 서소정, 2004)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서로 불일치하는 기존 연구결과들에 덧붙여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결과를 축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대상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은 낮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 또한 높았다. 먼저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이정순(2003)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과의 관계도 김미숙, 문혁준(2005)과 신숙재(1997)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양육 효능감과 영역별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부모 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부모로서의 고통 순으로 높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하위 영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최형성(2005)과 Mash와 Johnstone(1983),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3세 미만 영유아를 둔 부모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자녀의 기질에 대한 탐색 및 설명에 대한 내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숙재(1997), 이승미와 김희진(2005)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전체적인 양육 효능감과 영역별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보, 정서, 평가, 물질적 지지의 순서대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정서적 지지가 양육 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Crockenberg(1987)가 양육 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칭찬한다면 어머니의 내적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기술과 행동이 개선된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결과를 통하여 만약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면 정서적 지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소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 모임을 통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지지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지지도 능력은 정보, 정서, 평가적 지지의 순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물질적 지지는 인지지도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의 인지지도 능력에 대한 양육 효능감은 주변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 지

지보다는 정보적 지지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박성연과 백종화(2002)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보화로 인한 사회 문화적 맥락의 변화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이 높다.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대해서는 2절에서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신숙재와 정문자의 연구(1998), 이승미와 김희진(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신숙재와 정문자의 연구(1998)는 사회적 지지를 남편의 도움과 주위의 도움 두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정보, 정서, 평가, 물질적 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결과 특히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상관관계를 통하여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양육 효능감의 하위 영역별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양육 효능감에 대해서 양육 스트레스만 유의한 변수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해서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학력이, 훈육 능력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이, 의사소통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연령이, 인지지도 능력에 대해서는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의미 있는 변수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중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 효능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의 하위 영역간의 일관성 있는 부적 상관은 기존의 선행연구(김선희, 2005; 최형성, 2005)와 같은 맥락이다.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의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3절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시도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로 보육시설에 영아를 보내는 어머니와 그렇지 않은 어머니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와 관련된 변인만을 살펴본 것인데 아버지와 가족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임을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내용과 양육 효능감에 대한 영향

력을 밝힘으로써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자녀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 조복희 (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 아동학회지, 20(2), 41-55.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숙, 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선희 (2005).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5(4), 191-209.
-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2(4), 1-14.
- 문혁준 (2005). 취업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 박성연, 고은주 (2003). 영아보육 및 가족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91-106.
- 박성연, 백종화 (2002).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터넷 이용이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35-145.
- 박영애, 나종혜 (2003).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관련 신념 및 부모 효능감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12(3), 287-301.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소정 (2004). 양육효능감: 자녀양육행동 매개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 서혜영 (1991).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신숙재, 정문자 (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안선희, 김선영 (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안지영, 박성연 (2002). 2 ~ 3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양연숙, 조복희 (2001). 타인양육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아동학회지*, 22(1), 51-66.
- 우희정, 이 숙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 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 71-90.
- 유우영, 최진아, 이 숙 (199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51-61.
- 이 랑 (2003). 자녀 양육 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부모교육 요구 :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김희진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 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43(1), 17-33.
- 이영석, 최외선 (1993). 개인적 자원이 스트레스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2), 97-109.
- 이정순 (2003). 유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학회*, 8(2), 183-199.
- 이진숙, 한지현 (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3.
- 최형성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4), 111, -123.
- 최형성, 정옥분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 편은숙 (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유미 (2003).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 효능감 지각과 귀인. *가정관리학회지*, 21(5), 51-59.
- Abidin, R. (1983). *Parenting stress index*. Charli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Vandell, D. L., Burchinal, M., Clarke-Stewart, K. A., McCartney, K., & Owen, M. T. (2001). Are There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675-686.
- Brody, G. H., Flor, D. L., & Gibson, N. M. (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5), 1197-1208.
- Bronfenbrenner, U. (1992).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인간발달생태학 (이영 옮김). 서울 : 교육과학사(원판 1979).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_____. (2000).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mother of school age children :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correlates. *Family Relations*, 49(1), 13-24.
- Crockenberg, S. (1987).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4), 964-75.
- Dumka, L. E.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2), 216-22.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9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61-68.
- Mash, E. J. & Johnson, c. (1990). "Parental perception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1), 86-89.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 65-73.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385-98.
- Teti, D.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tation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other's parenting stress with her infant an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The object of the study were 234 mothers who commit their infant to 10 child-care facilities in U metropolitan city. The method of research was questionnaire method.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it ;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was generally high.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were the social support, the parenting stress, the mother's age, the mother's academic background, income and the order of birth etc.

Key word: mother's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parenting efficacy